

STARS
ON
STAGE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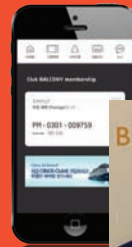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Club BALCONY가 제안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경험과 서비스

클럽발코니와 함께 감동의 문화생활을 설계해보세요!



JOIN Club BALCONY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예매고수의 노하우)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문화애호가의 필수품,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우송
모바일 회원카드 확인 후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증정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만료 후 재가입 시 할인 혜택



JOIN CIELOS Club

CIELOS 회원만을 위한 프라이빗 음악회, 전시회, 럭셔리 문화행사 무료초대 (동반1인 포함)
CREDIA의 엄선된 공연 패키지 30~50% 할인제공 및 좌석우위
Club BALCONY 평생회원 자격

Upcoming Programs

클럽발코니 렉처 프로그램

클럽발코니 x 오드포트 친절한 디토씨의 음악여행

- ↳ 미샤 마이스키 & 무지크 콜레기움 빈터투어 | 10/17
- ↳ 안네 소피 무터 | 11/21
- ↳ 사라 장 | 12/19

CIELOS TOUR

빈 필하모닉과 함께 떠나는 유럽 크루즈 10박 12일 | 2020/9/19 ~ 9/29

*판매 오픈 예정

STARS ON STAGE 2019

스타즈 온 스테이지 2019

2019년 10월 6일 (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PM Sunday, October 6, 2019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CRE DIA

장유진, 바이올린	Yoojin JANG, Violin
임주희, 피아노	Ju Hee LIM, Piano
양인모, 바이올린	In Mo YANG, Violin
문태국, 첼로	Taeguk MUN, Cello
벤 김, 피아노	Ben KIM, Piano
앙상블 디토	Ensemble DITTO
리처드 용재 오닐, 비올라	Richard Yongjae O'NEILL, Viola
다니엘 정, 바이올린	Daniel CHONG, Violin
자니 리, 바이올린	Johnny LEE, Violin
문태국, 첼로	Taeguk MUN, Cello
스티븐 린, 피아노	Steven LIN, Piano

주최 **CRE 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0**



파가니니 콩쿠르 최초 한국인 우승자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도이치 그라모폰 데뷔 앨범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스]

PAGANINI



24 Caprices

“직관적인 연주자. 그의 파가니니는 흥미롭고, 품위 있다”

- 지휘자 파비오 루이지



스트라빈스키 1882-1971
Russia

I. Stravinsky

<불새> 중 '지옥의 춤'

Danse Infernale from the Firebird

10'

임주희 Piano

슈베르트 1797-1828
Austria

F. Schubert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C장조 D. 934

26'

Fantasie for Violin and Piano in C Major, D. 934

Andante Molto 매우 느리게

Allegretto 조금 빠르게

Andantino 조금 느리게

Allegro vivace - Allegretto - Presto 빠르고 밝고 경쾌하게 - 조금 빠르게 - 매우 빠르게

장유진 Violin 임주희 Piano

I N T E R M I S S I O N

글리에르 1875-1956
Ukraine

R. Gliere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소품 Op. 39 중에서

8'

Eight Pieces for Violin and Cello, Op. 39

Preludio. Andante 전주곡.느리게

Intermezzo. Andantino 간주곡.조금 빠르게

Gavotte. Allegretto 가보트.조금 빠르게

Scherzo. Vivace 스케르초. 빠르고 생기있게

양인모 Violin 문태국 Cello

쇼스타코비치 1906-1975
Russia

D. Shostakovich

피아노 3중주 제 2번 e단조 Op. 67

30'

Piano Trio No.2 in e minor, Op. 67

Andante moderato 느리게 보통 빠르기로

Largo 아주 느리게

Allegro con brio 씩씩하고 빠르게 연주

Allegretto 조금 빠르게

양인모 Violin 문태국 Cello 벤 김 Piano

I N T E R M I S S I O N

드보르작 1841-1904
Czechoslovakia

A. Dvořák

피아노 5중주 A장조 Op. 81

36'

Piano Quintet in A Major, Op.81

Allegro ma non tanto 빠르게 지나치지않게

Scherzo: Molto vivace 스케르초:빠르고 생기있게

Dumka: Andante con moto 뒤편:조금 빠르고 활기있게

Finale: Allegro 피날레:빠르게

양상블 디토 Ensemble DITTO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불새> 중
 ‘지옥의 춤’

Igor Stravinsky
 Danse Infernale
 from the Firebird

러시아 출신으로 20세기의 천재 작곡가로 손꼽히는 이고르 스트라빈스키(1882-1971)는, 림스키-코르사코프로부터 작곡을 공부한 엘리트로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초기곡인 <교향곡, Op. 1>(1907)이나 교향시 <불꽃놀이, Op. 4>(1908) 등에는 스승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직설적이고 화려한 러시아적인 낭만성이 가득하다. 하지만 스트라빈스키는 림스키-코르사코프 사후 다른 문하생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그 반대급부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냈는데, 파리에서 ‘러시아 발레단’(Ballets russes)을 이끌고 거장들에게 작품을 위촉하며 화제를 불러 모았던 세르게이 디길레프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스트라빈스키는 일류 베이스 가수였던 아버지의 공연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무대음악이 친숙하기는 했지만, 당시는 무대음악을 작곡해본 적이 없었다. 디길레프는 그러한 스트라빈스키를 편곡자 정도로 고용했지만, 작품을 위촉한 아나톨리 리아도프로부터 뒤늦게 거절 의사를 받고는 스트라빈스키에게 급히 작품을 위촉했다.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 <불새>(1910)였다. 사실 <불새>는 여러 러시아 민요를 편곡하고 이어붙인 것이었는데,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이국적인 선율들만으로도 프랑스인들을 열광시키기 충분했다. 당시의 프랑스에서는 이국적인 스타일이 인기를 얻고 있었기에, <불새>의 타이밍은 매우 적절했다.

이반 왕자는 사냥하는 중에 ‘불멸의 카세이’의 영역에 들어선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불새를 잡아 죽이려는 순간, 불새의 애원에 놓아준다. 불새는 감사의 표시로 필요할 때 즉시 자신을 부를 수 있는 마법 깃털을 준다. 이반 왕자는 카세이의 마법에 거린 열세 명의 공주를 만나고, 그중 한 명을 사랑하게 된다. 다음 날 이반은 마법사를 만나 결투를 벌이고, 카세이는 괴물들을 보내 이반 왕자 뒤를 쫓는다. 이반이 마법의 깃털로 불새를 소환하자, 불새가 나타나 괴물들을 흘려 ‘지옥의 춤’을 추게 한다. 카세이와 그들이 깊이 잠이 들자, 이반 왕자는 불새가 가르쳐준 대로 카세이의 영혼이 숨겨져 있는 알을 찾아 깨뜨린다. 마법에서 풀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공주들도 깨어난다.

오늘 첫 곡으로 연주되는 ‘지옥의 춤’은 강렬한 군무가 인상적인 장면으로, 강력한 음으로 시작하여 긴장이 가득한 선율이 긴박하게 연주된다. 이제 음악을 경청할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동시에 일깨울 것이다.

프란츠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C장조 D. 934

Franz Schubert
Fantasie for Violin and Piano
in C Major, D. 934

빈의 낭만음악을 상징하는 슈베르트(1797-1828)는 그의 최후의 해인 182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친구들 무리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해 1월에는 무려 다섯 개의 연주회에서 슈베르트의 곡이 연주되었으며, 3월에는 빈에서 슈베르트의 공개 피아노 독주회가 열리기도 했다. (슈베르트가 공개 연주회를 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리고 2년 전에 슈베르트의 편지에 답장도 해주지 않았던 쇼트와 프로프스트 등 여러 출판사들이 그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월에 슈베르트의 곡을 연주한 음악회 중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슬라비크와 피아니스트 칼 마리아 폰 보클레트의 음악회도 있었다. 이 음악회의 프로그램에는 전해 12월에 작곡된 슈베르트의 따끈한 신곡 <환상곡 C장조>도 포함되어있었다.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하면서 슬라비크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감격스럽게도 곧바로 실현된 것이다. 하지만 평론가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다. 당시의 일반적인 길이에 비하면 너무 길었고 주제와 화음이 복잡했기 때문이었다. 한 평론가는 “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관객은 홀에서 점점 빠져나갔고, 작곡가는 이 곡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실토하고 있다.”라고 평했으며, 다른 평론가는 “긍정적으로 말해 잘못 작곡되었다.”라고 단정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프로프스트가 이 곡을 출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결국 세상을 떠난 후 1850년이 되어야 출판되었다.

<환상곡 C장조>는 ‘환상곡’이라는 제목처럼 슈베르트 말년의 자유로운 작곡 스타일을 보여준다. 1악장은 고요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피아노 연주로 시작한다. 바이올린은 아름다운 무언가를 노래하며, 피아노 반주가 화사한 분위기를 돋운다. 2악장은 유사 소나타 형식으로, 바이올린이 랩소디 풍의 화려한 연주를 들려준다. 이 곡에서 길이가 가장 긴 3악장은 가곡 <당신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D. 741>의 변주곡이며, 마지막 4악장도 3악장의 주제를 변형시켜 화려하게 진행한다.

레인홀드 글리에르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소품 Op. 39

Reinhold Glière
Eight Pieces for
Violin and Cello, Op. 39

레인홀드 글리에르(1875-1956)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러시아 낭만음악의 마지막을 지킨 작곡가이자 훌륭한 교육자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출신으로,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공부하면서 차이콥스키의 수제자인 세르게이 타네예프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미야스콥스키와 프로코피예프를 개인적으로 가르쳤고,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 시절에는 하차투리안, 모솔로프 등 소련의 중요한 작곡가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러시아 낭만음악의 끝자락에 있으며, 민속음악을 활용하는 데에도 열심을 보였고, 새로운 음악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러시아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글린카부터 독특한 감각을 지닌 스크랴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포용하고 있다. 그는 생전에 오페라와 발레음악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첼로 협주곡을 작곡한 최초의 러시아 작곡가로 러시아 음악사에 기록되어있으며, 오늘날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독주악기로 내세워 주목을 받은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협주곡>(1943)과 호른 레퍼토리로 정착한 <호른 협주곡>(1951)이 자주 연주되고 있다.

오늘 연주되는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여덟 개의 소품>도 실내악 무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이 곡이 작곡되었던 1909년은 베를린에서 지휘를 공부하던 때로, 아직 작곡가로서는 명성을 얻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이 소품에는 풍부한 낭만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악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담겨있으며, 유럽적인 세련미가 가득하면서도 선율의 진행은 러시아 음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등, 그의 입체적이고 높은 수준의 작곡실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1곡 '전주곡'은 동일한 리듬으로 집요하게 반복되는 화음과 불안감이 가득한 선율이 연주된다. 2곡 '가보트'는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 춤곡으로, 네 박자의 정박 리듬을 타고 분위기가 밝게 전환된다. 귀족적인 우아한 춤이 연주된 후, 민속악기인 허디거디 혹은 손풍금을 연상시키는 지속저음 반주 위에 시골의 춤곡이 중간에 등장한다. 3곡 '자장가'는 첼로의 아르페지오 반주 위에서 바이올린이 민속적인 정서를 가진 서정적인 선율을 연주한다. 4곡 '칸초네타'도 앞의 '자장가'와 유사한 구조지만, 더욱 빠르고 밝게 진행한다. 5곡 '간주곡'은 도약이 큰 선율의 도입부가 인상적이며, 프레이즈마다 표정이 바뀔 정도로 매우 감각적이다. 6곡 '즉흥곡'은 단절된 리듬을 가진 선율과 호흡이 긴 선율을 함께 연주하며 미묘한 대립과 조화를 들려준다. 7곡 '스케르초'는 강렬한 화음과 첼로의 피치카토 등 흥미로운 음악적 효과가 돋보이며, 트리오(중간 부분)에서는 이와 대조되는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이 등장한다. 하지만 부점리듬으로 생동감이 유지된다. 8곡 '연습곡'은 무궁동 스타일의 빠른 리듬으로 다급하게 진행한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3중주 제 2번 e단조
Op. 67

Dmitri Shostakovich
Piano Trio No.2 in e minor,
Op. 67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1906-75)는 사회의 요구와 사회에 대한 내면 사이에서 갈등했던 소련의 대표 작곡가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3년에 <피아노 삼중주 2번>(1943-44)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듬해 2월에 친한 친구이자 만능예술가였던 이반 솔레르친스키가 나치를 피해 피난하던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접했다. 쇼스타코비치는 슬픔에 겨워 작곡을 여러 차례 잊지 못하다가 8월이 되어서야 완성하고 솔레르친스키의 추억에 헌정했다. “우리는 다시 그를 볼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존재를 뒤트는 큰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를 추모하는 또 다른 작품 <현악사중주 2번>(1944)을 착수하여 9월에 완성했다. 그래서 이 두 실내악 작품은 슬픔과 비통함, 분노 등 공통의 감정이 입히며, 초연도 작곡자의 요청으로 그해 11월 14일 솔레르친스키가 음악감독으로 있었던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대공연장에서 베토벤 사중주단과 작곡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이루어졌다.

그런데 4악장에 유대 음악이 반영된 이유는 무엇일까?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엑스는 이 곡이 “소련에서의 유대인이 겪은 비극에 대한 애도의 표현”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1940년대 초에는 나치에 의해, 후반에는 스탈린에 의해 소련의 유대인들은 불합리한 반유대주의 정책으로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쇼스타코비치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고통을 마음 깊이 공감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방어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겪을 모든 고통이 집중”되었던 유대인의 고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즉, 유대 음악의 반영은 곧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었다.

1악장은 첼로의 하모닉스(현에 손가락을 살짝 얹은 상태로 활로 현을 쳐서 높은 배음을 내는 연주법)로 만드는, 마치 유명한 노래와 같이 음습한 선율로 시작한다. 그리고 다른 두 악기가 이를 모방하며 차례로 등장하여 뒤엉키며 진행한다. 이어 8분음표 리듬을 바탕으로 속도가 빨라지면서 첫 주제가 자유롭게 발전한다. 2악장은 A-B-A의 구조를 갖는 간단한 스케르초로서, 정신을 홀리는 광란의 춤곡이다. 느린 3악장은 바로크 시대의 ‘라멘토’(애가)를 연상시키는 하행하는 피아노 화음의 반복 위에 두 현악기가 흐느끼는 듯 어둡고 침울한 감정을 담은 선율을 연주한다. 4악장은 두 현악기가 마치 비웃는 듯한 냉소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한 스타카토 연주로 조용히 시작한 후, 피아노가 유대 스타일의 주제 선율을 연주한다. <현악사중주 2번>의 3악장 ‘왈츠’에서도 그랬듯이, 이 악장도 ‘죽음의 춤’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율이 변주되고 발전하며 대단원을 향해 질주하며, 앞의 세 악장에서 연주되었던 선율들이 재등장한다. 그리고 3악장의 라멘토 화음과 함께 죽은 자의 영혼이 세상을 등지고 심연으로 사라지듯 마친다.

안토닌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 A장조
Op.81

Antonín Dvořák
Piano Quintet in A Major,
Op.81

<신세계 교향곡>으로 유명한 안토닌 드보르작(1841-1904)는 보헤미아의 민속음악과 빈의 세련된 양식을 결합하여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피아노 오중주 2번>은 1887년 8월 18일 비스카의 별장에서 작곡이 시작되어 10월 8일 프라하에서 완성되었으며, 이듬해 1월 8일에 프라하에서 첫 선을 보였다. 본래 1번(1872)을 개작하려고 했던 계획 탓인지 1번과 같은 가장조로 되어있으며, 풍부한 화음이나 낭만주의적인 표현 등 또한 1번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브람스의 <피아노 오중주, Op. 34>(1864)의 영향이 엿보이는 가볍고 투명한 앙상블과 보헤미아의 민속적인 특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이 곡은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실내악 작품으로서 자주 연주되고 있으며, 피아노 오중주 곡으로서 손에 꼽는 명곡으로 인정받고 있다.

1악장 ‘빠르게, 지나치지 않게’. 피아노의 짧은 서주 후, 민요 스타일의 첫 주제가 첼로로 제시된다. 여기에 피아노가 부드럽하면서도 애조 띤 반주를 한다. 곧 활력이 더해지고 피아노의 화려한 진행으로 분위기가 전환된다. 하지만 비올라가 연주하는 제2주제는 소박하고 외로운 느낌마저 든다. 이 두 주제가 소나타 형식으로 진행된다.

2악장은 ‘뚝카’이다. ‘뚝카’(dumka)란 우크라이나에서 유래한 슬라브 민족의 슬픈 노래를 말한다. 뚝카는 슬픈 선율과 이에 대조되는 빠르고 열정적인 선율이 이어지는 것이 특징으로, 이 악장에서도 앞부분에서는 피아노가 슬픔에 찬 도입부를 연주하면 비올라가 흐느끼듯 주제를 제시하고 바이올린과 첼로가 이 선율을 이어받으며, 뒷부분에서는 밝고 격정적인 춤곡이 분위기를 전환한다. 그리고 다시 슬픈 분위기로 마무리한다.

3악장 ‘스케르초’는 뒤쪽에 강세가 있는 체코의 민속춤곡 ‘푸리안트’(furiant)이다. 푸리안트는 빠르고 강렬한 선율과 서정적인 선율이 교대로 등장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스케르초 형식에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4악장 ‘빠르게’는 기대감 가득한 짧은 서주로 시작을 알린 후, 바이올린이 슬라브 민족의 춤곡 스타일의 제1주제를 화려하게 연주하고, 곧 리듬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정적인 감성이 충만한 제2주제가 등장한다. 이 두 주제가 소나타 형식으로 진행하며, 마지막에 격렬한 최고조에 이른다.

글 | 송주호(음악 칼럼니스트)



〈카잘스 콩쿠르〉 최초의 한국인 우승자

첼리스트 문태국

인터내셔널 데뷔앨범 〈첼로의 노래〉



문태국 첼로, 한지호 피아노

메이저 레이블이 20여년 만에 찾아낸, 보석 같은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최초의 한국인 우승자,
첼리스트 문태국의 위대한 첫 발걸음을 담아낸 데뷔 앨범.

파블로 카잘스에 대한 경의를 담은,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베토벤 첼로 소나타〉, 〈슈만 트로이메라이〉, 〈루빈스타인 멜로디〉,
그리고 〈슈베르트 음악에〉, 〈슈만 헌정〉, 〈새의 노래〉 수록!

© DARIO ACOSTA



CREDIA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Violinist YooJin Jang

2016년 일본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 2017년 GCA(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은 학구적인 곡 해석과 폭발적인 기교로 관중의 눈과 귀를 무대로 집중시키는 걸출한 카리스마를 가진 연주자이다. 특히 장유진은 바이올린으로 창조해내는 소리의 섬세한 질감, 그리고 음악 전달력에 있어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말보로 체임버 뮤직페스티벌, 카라무어 라이징 스타 시리즈, 마이러 헤스 메모리얼 콘서트 시리즈, 라비니아 스티븐 인스티튜트 온 투어, 올드 사우스 미팅 하우스, 이사벨라 스투어트 가드너 미술관 등 보스턴, 뉴욕을 중심으로 호평을 받으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2017-2018 시즌에는 일본에서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및 독주회, 음반 녹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실내악에서 열정과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장유진은 2009년 KNUA 스트링 콰르텟을 결성하여, 같은 해에 실내악 부문에서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 국제 현악사중주 콩쿠르에서 실로스 바이커스 장학금을 수상했다. 2012년부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솔리스트들인 바이올리니스트 (故)권혁주, 비올리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심준호와 함께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을 창단하여 활동 중이고 최근 바이올리니스트 강수연씨가 멤버로 합류했다.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은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작품 전곡 연주> 등 도전적이면서도 심도 깊은 프로그램을 완성도 높은 연주와 함께 선보이며 실내악 음악계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찍이 수많은 콩쿠르에서 두각을 보인 장유진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마이클 힐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메뉴힌 콩쿠르 등에서 수상하였으며, 일본 무네츠구 콩쿠르,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러시아 영 뮤지션을 위한 차이콥스키 홈랜드 국제 콩쿠르 등에서 우승하였다.

2010년 한국예술종합학교(사사 김남윤)를 수석 졸업 한 후 도미하여, 미국을 대표하는 연주가이자 교육자인 미리암 프리드 문화에서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 과정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TA로 임하고 있다. 장유진은 음악원 역사상 보기 드문 최고연주자과정과 박사과정을 모두 수학한 연주자로, 지성과 감성을 고루 갖춘 특출한 예술가의 탄생을 예고되고 있다.

피아니스트
임주희Pianist
Ju-Hee Lim

2000년에 태어난 임주희는 서울대학교 장형준 교수를 사사하고 현재 신수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피아니스트 강충모를 사사하고 있다. 예원콩쿠르 대상, 삼익피아노콩쿠르 1등, 음연콩쿠르 1등, 소년 한국일보콩쿠르 1등, 중앙대학교콩쿠르 1등을 수상하며 국내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2009년 금호영재콘서트 오디션 합격과 아마하 리틀피아니스트 시리즈 리사이틀 데뷔를 시작으로 2010년 러시아 백야의 별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발레리 게리기에프 지휘로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 4일동안 카발레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3번과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 D장조를 협연하였으며 독일 라인가우 뮤직페스티벌에 초청되어 폴란드 캄머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였고 중국 상하이 실포니에타 콘서트 시즌오프닝에서 협연을 했다. 2011년에는 프랑스 앙시페스티벌에 초청되어 ‘데니스 마쉴레프와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무대에 오른 임주희는 기성 연주자 못지 않은 기량으로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2012년 2월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의 한국 공연에 발레리 게리기에프의 지휘로 라벨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하였으며 2014년 정명훈 지휘로 서울시향과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협연하였다. 8월 15일에는 광복 69주년 기념음악회에 정명훈 지휘로 서울시향과 협연하였으며 8월 16일에는 2014 서울시향 유럽투어프리뷰콘서트에 초대되어 정명훈 지휘로 협연하였다. 2015년에는 미라클오브뮤직으로부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2016년 교보 노블리에콘서트에 초대되어 서울을 포함한 대전, 광주, 부산, 대구에서 정명훈 지휘로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2017년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7월 평창대관령음악제에서 라이징 스타 초청 연주를 하였고 8월에는 평창대관령음악제 협주곡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우승자 협연을 하였다. 9월 16일, 18일, 21일 3일간 정명훈 지휘로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성공적인 도쿄 데뷔 무대를 마쳤다. 2018년 5월에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에서 연주하였고 6월에는 도쿄 산토리홀에 초대되어 고이치로 하라다 지휘로 협연하였다. 7월에는 평창대관령음악제에 재초청되어 독주회를 가졌다. 8월에는 이시가와 뮤직 아카데미에 초대되어 라이징 스타 연주를 하였으며 2018 이시가와 뮤직 아카데미 뮤직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2019년 2월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이끄는 원코리아 유스오케스트라와 슈만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하였으며 최근 연천 DMZ국제음악제 초청독주회, 톨뮤직 초청독주회, 이시가와 뮤직 페스티벌 라이징스타 독주회, 삼성 인재개발원 초청독주회, 아트엠 초청독주회를 했다.



CREDIA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Violinist In Mo Yang

보스턴 글로브지로부터 “흡잡을 데 없는 기교와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 그리고 “내면의 진솔함을 연주로 표출해내는 매력적인 능력”이라 극찬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2015년 3월,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열린 제54회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약 10년 만에 탄생한 우승자이다. 그는 이와 함께 최연소 결선 진출자상, 현대 작품 최고 연주상, 청중상에 이르는 특별상을 휩쓸며 바이올린 채널로부터 ‘새로운 세대의 가장 재능 있는 젊은 현악 거장’으로 꼽혔다.

명성 높은 콩쿠르에서의 1위 수상은 세계 전역의 유서 깊은 공연장과 명문 악단의 초청으로 이어졌다. 2014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에서 우승하여 카네기홀 와일 리사이틀 홀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2015 파가니니 콩쿠르에서의 우승으로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덴마크 방송교향악단의 초청을 받아 협연하였고, 제노아에서 파가니니가 생전에 사용하던 악기인 ‘과르네리 텔 제수’로 리사이틀 무대에 올랐다.

양인모는 2018년, 프랑스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스위스 투어 중 홀르, 제네바 공연에서 협연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파리 라디오 프랑스 오디토리움에서 생상스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을 협연하였다. 한국에서는 2018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어 한 해 동안 정기적으로 다양한 공연을 올리며 국내 관객들과 만났고, 상주 음악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보인 파가니니 24 카프리스 전곡 연주는 실황 녹음되어 2018년 11월,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출시되었다.

1995년 한국인 부모님 아래,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양인모는 11세에 이원문화센터 꿈나무 콘서트에서 데뷔 리사이틀을 가졌으며, 이후 13세에 금호영재콘서트 무대에서 그 음악성을 드러내며 주목을 받았고, 15세에는 KBS교향악단과의 무대를 통해 오케스트라 협연자로서도 데뷔했다. 2011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을 졸업한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하여 수학했다. 현재는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미리암 프리드 사사로 최고연주자과정에서 유일한 바이올리니스트로 발탁되어 수학하고 있다.

양인모는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후원으로 요제프 요아힘이 브람스 협주곡을 초연할 때 사용했던 바이올린, 1714년 스트라디바리우스 ‘요아힘-마’로 연주하고 있다.

첼리스트 문태국

Cellist Taeguk Mun

문태국은 제15회 성정전국음악콩쿠르 최연소대상, 독일 올덴부르크 청소년국제콩쿠르 1등, 2011년 제3회 앙드레 나바라 국제첼로콩쿠르 1등,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쿠르 1등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수많은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며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다. 2016년 세계적인 첼리스트 ‘야노스 슈타커’의 이름을 딴 재단이 30세 이하 젊은 첼리스트에게 수여하는 제 1회 야노스 스타커상 수상자로 문태국을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2019년 제 16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4위에 입상하였다.

2004년 금호영재독주회와 2006년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독주회를 시작으로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수차례 독주회를 했다. 또한, 수원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툴루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으며 2014년 부산국제음악제에 라이징 스타로 초청받아 연주하였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독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2015 교향악축제에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으며 헝가리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쳤다. 2016년 서울스프링실내악페스티벌,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과 헝가리<안익태 110주년 기념음악회>에 초청되어 연주를 했고 2017년에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어, 연간 총 5회의 무대에 올랐으며, 실내악 그룹 앙상블 디토에 합류하여 활약 중이다.

1994년 출생한 첼리스트 문태국은 만 4세에 첼로를 시작하였고 2007년에 도미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양영림을, 줄리어드 예비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클라라 김을 사사하였다. 이후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첼리스트인 로렌스 레서를 사사했고 현재 미국 남가주 대학교(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랄프 커쉬바움(Ralph Kirshbaum)을 사사하고 있다.

(재)성정문화재단과 황진장학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으며 제2회 SK케미칼 ‘그리움(G.rium)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였다. 문태국은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밀란 1697년산 지오반니 그란치노(Giovanni Grancino, 1697, Milan)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2월에는 워너 뮤직 인터내셔널 레이블로 데뷔앨범 <첼로의 노래>를 발매했다.

피아니스트

벤 김

Pianist

Ben Kim

“세계가 주목하는 천재피아니스트에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휴머니스트로...”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나고 자란 그는 도로시 팔먼의 지도하에 5세에 피아노를 시작, 8세에 독주 데뷔, 12세에는 협연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음악적 학업에 전념하기 전까지 그는 수학과 글쓰기에 또한 많은 흥미를 가졌다.

20세에 그는 피바디 음악원에서 레온 플라이셔 사사로 피아노에 전념, 2012년에는 전문연주자로서의 돋보이는 성과를 인정받아 존스 홉킨스 대학(피바디 음악원)의 13,000명 졸업생 가운데 최우수 졸업생 6명에게만 수여하는 최우수졸업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같은 세계적 피아니스트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레이크 코모 국제 피아노 아카데미에 선발되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학했다.

성숙한 음악성과 진중함 그리고 통찰력을 지닌 연주자로 빠르게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 가고 있는 그는 바흐와 같은 고전부터 쇤베르크, 만프레드 트로얀, 재클린 폰탱, 프레데릭 제프스키와 같은 동시대 작곡가까지 방대한 레퍼토리를 소화해내는 피아니스트이다. 독일의 주요 일간지인 ‘취트도이체 차이퉁’은 최근 그의 공연에 대해 “희열과 활력으로 가득하다.”라고 극찬하였다. 2006년 독일에서 열린 제55회 뮌헨 ARD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세계 전역에서 가진 무대로 관객과 평단의 극찬을 받고 있다.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며 베를린 음대에서 클라우스 헬비히와 공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에게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

피아니스트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암벽 등반을 즐겨 하며 독일 알파인 협회 회원이기도 할 만큼 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일을 즐길 줄 아는 그는 연주를 위한 여행이 아닌 혼자만의 여유를 위한 여행의 기회를 즐긴다. 2017 라인가우 국제 페스티벌에서 주최 측이 선발하는 젊고 유능한 음악가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되어 15,000유로를 상금으로 받아 화제가 되었다.



THE XVI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THE XVI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제16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우승자 갈라 콘서트

CREEDIA

지휘 | 노리치카 이이모리 Norichika Iimori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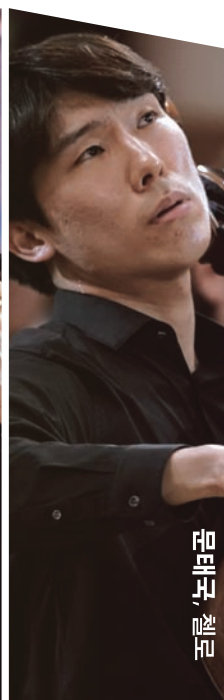
마오 후지타, 피아노



세르게이 도구딘, 바이올린



스티이고 카반 발렌시야, 첼로



만베구, 첼로

2019.10.15 TUE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CRE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0 티켓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프로그램 차이콥스키 | 페초 카프리치오스 B단조 Op. 62 / 피아노 협주곡 1번 B b 단조, Op. 23 /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A장조 Op. 33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 35



© SANGWOOK LEE

CREDIA

Ensemble DITTO

왜 클래식 음악회에는 젊은 관객이 오지 않는 것일까, 그들을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물음들이 디토의 출발이었다. 그래서 디토는 스스로 관객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클래식 음악과 친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전통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들의 시도와 다양한 레퍼토리들로 이들의 미션을 실행해 나갔다. 그리고 팬들은 매우 뜨겁게 그러한 노력에 보답해 주었다. 2007년 시작으로 지난 12년 동안의 만난 팬들은 일회성 관객이 아닌, 클래식 음악의 애호가로 디토와 함께하고 있다.

양상블 디토는 데뷔 때부터 음악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시도로 많은 화제를 낳았다. 차별화된 프로덕션 제작과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 아티스트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했고, 이를 통해 청중을 관심을 끌고 더욱 열광하게 하였다. 드라마 OST 연주, 흥대 앞 클래식 연주회, 게릴라 콘서트, 해외 화보촬영, 다양한 뮤직 비디오와 캠페인 비디오 제작 등 클래식 연주 단체로서는 유례없는 파격적인 활동으로 더욱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10, 20대,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을 클래식 공연장으로 모이게 하며 2008, 2009년 예술의전당 유료관객 1위를 기록, 매년 10개 도시 순회공연을 모두 매진시키는 기염을 토하며 끊임없는 관심과 주목을 받아온 양상블 디토는 2010년, 활동 영역을 일본으로 확장했다. 2010년 6월 도쿄국제포럼과 오사카 심포니 홀 공연을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펼쳤으며, 일본 데뷔 첫해에 7,000석을 매진시키며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클래식 시장에 당당히 진출, 한국 연주자와 한국 클래식 콘텐츠의 더 큰 가능성을 제시했다. 2010년에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하는 한-중-일 문화 셔틀 콘서트를 펼쳤다. 한국, 일본, 중국의 젊은 아티스트가 양상블 디토의 이름으로 모여 펼친 이 공연은 그들의 국제적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리이기도 했다. 2011년에는 도쿄 기오이 홀에서 펼쳐진 한일문화교류 공연에 초청받아 문화교류 사절 역할도 소화했으며, 2012년에는 아시아 최대의 클래식 페스티벌, 일본 '열광의 날'에 초청받아 사흘간 공연을 펼쳤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Violist, Richard Yongjae O'Neill

“연주한다는 건,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공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음악은 결국 '나눔다'는 것이니까”

줄리어드 음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취득, 2006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수상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단원이자 에네스 콰르텟의 비올리스트
 런던 필, 로스엔젤레스 필, BBC 심포니, 크레메라타 발티카, 알테 무지크 쾰른 등과 협연
 유니버설 뮤직/DG 아티스트로서 여덟 장의 솔로 앨범과 베스트 앨범 <My Way> 발매
 클래식 음악 에세이 <공감>(중앙북스), <나와 당신의 베토벤>(노승림 공저, 오픈하우스) 출간
 MBC 대기획 <안녕!! 오케스트라> 참여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정

Violinist, Daniel Chong

“클래식 음악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어요.

클래식을 이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당신에게 정말 특별한 음악이 될 거예요.

삶에 영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커티스 음악원, 클리블랜드 음악원을 거쳐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학사와 석사 취득
 2002년부터 파커 콰르텟의 바이올린 1주자를 맡아 파커의 2011 그라미 수상 리드
 뉴욕 카네기홀, 빈 무지크페라인, 런던 위그모어홀 등 전 세계의 유서 깊은 극장에서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자니 리

Violinist, Johnny Lee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고 깊은 영감과 완벽한 기교”

클리블랜드 음악 대학 졸업

캔턴 심포니의 악장과 샬럿 심포니의 부악장 역임

로스엔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최초의 한국단원 출신 단원

클리블랜드, 시카고, 에머슨, 줄리어드 멘델스존 현악 4중주 등의 다수의 체임버 앙상블의 일원으로 활동

2007-2009 앙상블 디토 바이올리니스트 참여

첼리스트 문태국

Cellist, Taeguk Mun

“첼로 역사의 새로운 계보를 잇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전액장학생으로 로렌스 레서 사사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랄프 커쉬바움 사사

2014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쿠르 아시아, 한국인 최초 우승

2019 제 16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4위

독일 올덴부르크 청소년국제콩쿠르 1등, 앙드레 나바라 국제첼로콩쿠르 1등

(재)성정문화재단과 황진장학회에서 후원, SK케미칼 G.rium Artist

피아니스트 스티븐 린

Pianist, Steven Lin

“색채와 강약의 조절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절묘하다”

줄리아드 음악원 졸업, 커티스 음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

2012 윌리엄 카펠 콩쿠르, 지나 박하우어 콩쿠르,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콩쿠르 우승

2013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심사위원장 특별상 수상

2014 아르투어 루빈슈타인 콩쿠르 은메달 수상



© SANGWOOK LEE

스타 연주자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여행을 떠나요! <스타즈 온 스테이지 2019>

길고 무더웠던 작년 여름, 각 매니지먼트사를 대표하는 스무 명의 젊은 스타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 오르는 파격적인 클래식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스타즈 온 스테이지 2018>

낮에 시작해 밤까지 이어졌던 이 마라톤 콘서트는, 각 연주회마다 서로 조합을 이루기 힘들었던 연주자들이 함께 협연하며 즐거움을 공유했던 무대로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 무대의 특별함과 감동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또다시 <스타즈 온 스테이지 2019> 무대가 준비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공연에는 미모의 궁사,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이 출동합니다. 청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했으며, 그 여세를 몰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후에는 도미하여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석사와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고, 지금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그녀는 전문 연주자의 특별한 재능은 물론 학자로서의 면모까지 갖춘, 문무를 겸비한 귀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미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2016년에는 ‘샌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아티스트로서의 기반도 단단히 다졌는데, 올해 4월에는 연주자들의 꿈의 무대인 ‘카네기홀’에서 데뷔 리사이틀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갈라치 스트링 콰르텟>의 멤버로 실내악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요즘 가장 밝게 빛나는 비르투오조 중 한 명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임주희와 짝을 이뤄 슈베르트의 환상곡 D.934를 연주합니다.

장유진이 찬란하게 빛나는 스타라면, 피아니스트 임주희는 떠오르는 샛별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는 2010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했던 마에스트로 ‘발레리 게르기예프’의 공연 때, 비공개 협연자로 깜짝 등장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녀는 당시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또한 가방 끈이 매우 긴 장유진 박사님과과는 다르게, 임주희는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성장한 매우 드문 케이스의 연주자입니다. 그녀는 아예 학교에는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으로 공부하며, 필요 과정은 검정고시로 마치고, 이제 막 대학진학을 준비 중이라 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녀는 누구보다도 더 폭 음악에 빠져 지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직도 십대인 그녀가 10살 위의 노련한 장유진과 어떤 케미를 들려줄 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둘의 협연 이전에 독주 무대로 펼쳐질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또한 기대 만발입니다.

2부 공연에서는 훈남들이 우르르 등장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첼리스트 문태국, 피아니스트 벤 김의 무대가 준비됩니다. 첫 곡으로 양인모와 문태국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글리에르의 작품 Op.39’을 들려주고 나면, 벤 김이 가세해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 2번을 연주하게 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2014년 ‘예후디 메뉴힌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2위 입상한 후, 2015년 만 20세의 나이에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유일한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마치 파가니니가 환생한 듯 놀라운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서 ‘인모니니’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2018년에는 금호아트홀의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어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그 동

안 ‘파가니니의 24 무반주 카프리스’ 공연을 라이브 실황으로 녹음해 음반으로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바이올리니스트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절대기교의 난곡을 실황으로 녹음한 연주자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말이지요.

첼리스트 문태국은 2014년, 만 20세 때 치러진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우승했습니다. 당연히 최초의 한국인 우승자이기도 했죠. 그밖에 전설의 명 첼리스트의 이름을 딴 ‘앙드레 나바라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도 우승했으며, 역시 명 첼리스트 ‘야노스 슈타커’의 이름을 딴 재단이 수여하는 장학금을 받은 첫 번째 수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태국 역시 올해 초 워너클래식 레이블로 인터내셔널 데뷔 앨범인 <첼로의 노래>를 발매했습니다. 카잘스가 생전에 즐겨 연주했던 곡들을 골라 ‘첼로의 성자’에 대한 오마주를 담아냈습니다. 올해 열린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는 아쉽게도 4위에 그쳤지만 이 역시 한국인 첼리스트가 이룬 최고의 상위입상 기록입니다. 그가 아직 20대 중반임을 감안한다면 이 모든 기록들은 놀라운 성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아니스트 벤 김은 이 두 연주자들 보다 약 열 살 터울의 형님이지만, 일찌감치 2006년 독일의 ARD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피바디 음악원에서 미국이 첫 손에 꼽는 거장 피아니스트 ‘레온 플라이셔’를 사사했습니다. 지금은 독일에 자리를 잡고 베를린 음대에서 공부 중입니다. 그는 음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기로 유명한데, 건축가를 꿈꾸기도 했고, 수학과 글쓰기에 매료되기도 했답니다. 손을 쓰는 음악가로는 거의 금기시되는 운동에도 취미가 있어서, 테니스는 물론 산악자전거도 즐기며, 믿지 못하시겠지만 미국 암벽등반협회 회원이기도 하답니다.

마지막 3부 공연에 등장하는 음악가들은 화려한 엔딩의 중책을 맡은 ‘양상블 디토’입니다. 아쉽게도 올해로 활동을 마무리 할, 이 매력적인 양상블은 이제 만날 기회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죠. 게다가 이들이 연주할 곡은 시그니처곡 중 하나인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입니다. 오랜만에 다니엘 정과 자니 리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스티븐 린의 피아노에 문태국의 첼로 사운드가 더해집니다. 비올라요? 비올라는 언제나 영원한 디토의 리더인 리처드 용재 오닐의 몫이죠!

요즘 가장 핫하다는 <장유진과 임주희>, 클래식 미래를 책임질 훈남들인 <양인모, 문태국, 벤 김> 그리고 마지막 열정을 불태울 <양상블 디토>까지, 이렇게 이미 스타인 아홉 명의 연주자들이 꾸미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무대는 우리에게 기대감과 궁금증을 동시에 안겨 줍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공연감상을 마치고 예술의전당의 문을 나설 때쯤이면 일요일 저녁의 달빛보다 더 온화하고 따스한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환하게 밝혀줄 겁니다.

글 | 이상민 (클래식음악 큐레이터)

CHRISTMAS WITH RICHARD YONGJAE O'NEILL

◆ 리처드 용재 오닐 ◆

선물



2019 크리스마스 콘서트

리처드 용재 오닐 비올라 | 스테판 피 재키브 바이올린 | 박규희 클래식 기타 | 박종성 하모니카
그리고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2019.12.25 WED 5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24 성남아트센터 | 12.26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DELHI

전설과 신비의 땅, 인도에 귀 기울이다

대한항공 델리 노선 매일 운항
델리에서 당신만의 인도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www.koreanair.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타지마할
Taj Mahal

스타즈 온 스테이지 2019

CREDIA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 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